보물급 도난 불상 11점 다시 찾았다

서울경찰청, 27년간 문화재 은닉한 사범 검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7년간 불교문화재 11점을 은닉한 前사립박물관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도난 불상 11점.


前사립박물관장 등은 원서동 무허가 건물을 창고로 이용하며 문화재를 은닉해왔다.

前사립박물관장 · 박물관국장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혐의
원서동 무허가 건물에 숨겨

위봉사 입상 · 대흥사 삼존불
당장 보물 지정돼도 무방해
조선후기 최고 조각승 색난
계보도 새로 파악 가능해져

피해사찰 6곳 협의체 구성
향후 수사 결과에 대응키로

도난됐던 보물급 불교문화재 11점이 다시 세상의 빛을 봤다.

서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난된 불교문화재를 27년간 은닉한 前사립박물관장 A씨와 아들인 前 박물관 국장 B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9년 9월 25일 전북 완주 소재 위봉사에서 도난된 관음보살입상 등 불교문화재 11점을 판매업자에서 취득 포장한 후 원서동 박물관 부지 내 무허가 창고 등에서 장기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4월경 사찰 등에 불교문화재 11점을 되팔려다 범행이 발각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4년에도 문화재 은닉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현재 A씨 등은 1991년~1996년경 문화재매매업자(2014년 사망)로 부터 도난 여부를 모르고 1억7천5백만 원에 구입했다고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등은 A씨가 주장하는 선의취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연호 지능범죄수사대 지능1팀장은 "일반적으로 문화재 사범들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며 불리한 경우에는 사망한 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법을 사용한다"며 "회수된 해당 대흥사 삼존불상에서 제작시기, 소유사찰 등이 기재된 복장물이 있었음에도 사립박물관장은 어떠한 전시 · 조사 · 연구도 없이 무허가 건축물 창고 등에 장기간 은닉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물관에 근무했던 인력들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해당 불상들에 대해 유물카드나 대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되찾은 불상 11점 중에는 당장 보물로 지정돼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 상당 수이다. 위봉사 목조관음 · 지장보살입상은 보물 제1842호로 지정된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과 함께 조성된 것이다.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의 발원문에 따르면 "1605년에 조각승 원오 스님이 위봉사 북암에서 관음, 지장, 문수, 보현보살 4구를 조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 회수된 보살입상 2구가 이때 제작된 관음 · 지장보살상이다.

1991년 도난된 대흥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조선 중후기에 활동한 최고 조각승 색난 스님의 작품으로 색난 스님의 조각승 계보도를 새롭게 조명할수 있는 조성발원문 등이 함께 발견됐다.

이와 함께 목조관음 · 대세지보살좌상(문경시 운암사), 목조아미타불좌상(장수 팔성사), 목조관음 · 대세지보상좌상(군위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여수 용문사) 등도 시 · 도지정문화재로 상신할 수 있는 높은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

수사에 참여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회수된 위봉사 보살상 2구와 대흥사 삼존불 3구는 시대와 규모 · 작품성을 봤을 때 당장 보물 지정 상신이 가능한 작품이며, 나머지 6구의 불상도 시 · 도문화재에 지정이 가능하다"면서 "모두 조선 후기 불교 조각의 양식적 특징, 조각승의 계보 연구에 매우 중요한 문화재"라고 평가했다.

보물급 불상이 포함된 11구의 도난 불상이 회수됨에 따라 조계종의 대응도 빨라졌다. 현재 6개 피해 사찰은 협의체를 구성해 경찰 수사에 따른 대응에 들어갔다. 피의자 기소가 이뤄지면 범죄 피해물로 환수가 가능하나, 불기소의 경우 민사재판을 통해 환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계종은 문화부장 정안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화재 절도 및 은닉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정안 스님은 "불교문화재 도난은 사찰에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역사적 의미까지도 무참히 훼손하는 몰염치한 범죄"라며 "자리를 떠난 성보들은 조속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불자들에 의해 예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의 장물 취득과 은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 개정을 시급히 요구한다"면서 "그래야만 문화재의 도난과 밀거래를 차단할 수 있고, 신앙의 대상이 문화재적 가치와 값으로 밀거래 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물관과 경매업체, 개인 컬렉터 등 전문 취급자에게는 문화재 구입 시에 출처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문화재 이력제도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안 스님은 "종단은 피해사찰협의회와 긴밀히 논의해 도난 불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도난 불교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불교본부 발족

11월 29일 불교환경연대 등 29개 단체 참여



불교시민사회단체는 11월 29일 탈핵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를 창립했다.

지난 10월 전국 환경단체들이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한 가운데, 불교계가 이에 동참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 불교환경연대 등 29개 단체는 11월 29일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이하 불교본부)'를 창설했다. 앞으로 불교본부는 내년 3월까지 10만 명 서명을 추진한다.

불교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생명존중과 소욕지족의 불교사상에 비춰볼 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핵발전에 의존하는 지금의 에너지 정책은 맞지 않다"며 "이에 불교본부는 햇빛과 바람과 지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해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불교본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서 벗어나야한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으며, 10만년 이상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핵에너지가 싸고 안전하며 청정하단 홍보와, 핵발전을 멈추면 우리나라가 암흑세계가 될 것처럼 과대 포장된 허위선전서 벗어나야한다"며 "핵발전이 위험하며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기술이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단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 이제라도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 · 6호기 및 삼척 ·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KAL 인도 델리 취항…성지순례객 큰 호응 기대

인도 노선은 주 8회 운항, 온라인 이벤트도 실시

대한항공이 12월 1일부터 인천~델리 신규노선 취항을 한다. 특히 델리는 주변에 부처님 성지가 많아 인도 성지순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인도 뭄바이 노선을 주 3회 운항중이며, 이번 델리 노선의 주 5회 신규 취항을 통해 인도 노선은 총 주 8회 운항하게 된다. 대한항공이 주 5회 취항하는 인천~델리 노선의 출발편(KE481)은 매주 화, 목, 금, 토, 일 낮 12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20분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복편(KE482)은 오후 7시 40분 델리를 출발해 다음 날 오전 5시 50분 인천에 도착한다. 인천~델리 노선에는 프레스티지 슬리퍼 등의 최신 좌석과 최첨단 주문형 오디오비디오시스템(AVOD)이 장착된 218석 규모의 A330-200 항공기가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델리 취항으로 현재 취항하는 해외 도시가 총 119개로 늘어났다.

한편, 대한항공은 자사 마이크로 사이트(http://india.koreanair.com)를 통해 소중한 사람에게 인도 관련 힐링 메시지를 공유하는 '인도하는 영상 엽서 보내기 이벤트'와 인도 여행 전문가를 선정하는 '인도여행기 공모 이벤트' 등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인도하는 영상 엽서 보내기 이벤트'는 마이크로 사이트서 제공하는 인도 여행 배경의 영상 엽서를 지인에게 보내면 자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영상 엽서를 통해 다양한 대상과 상황에 맞춰 준비된 메시지가 참가자들에게 제공된다. 또한 '인도여행기 공모 이벤트'는 인도에 대한 글과 사진 등 여행기를 작성해 응모한 참가자들 중 심사를 통해 인도 전문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이벤트는 11월 28일부터 5주간 진행되며, 당첨자는 이벤트 종료 후 마이크로 사이트 당첨자 게시판에 발표한다.

김주일 기자

